

“잠재수요 확대… 제4의 축산의 가축으로 자리매김”

국내 양육 산업은 몇 년째 계속 경기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육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작된다면, 외국산 녹용 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녹용 잠재수요 개발 ▲ 환경친화적 축산 ▲ 녹용시장의 여건 변화 ▲ 양육업의 전업화, 구조화 ▲ 양육산물 가공, 유통체계 개선 ▲ 양육 산업 발전을 위한 양육자조금사업 등의 사안을 품고 양육 인이 하나로 단결한다면 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 녹용 수입물량 급격히 증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실정

국내 양육 산업은 몇 년째 계속 경기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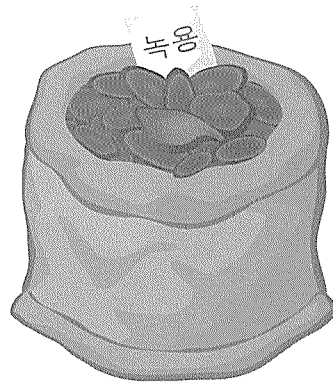
국내 사슴 사육두수는 지난 1988년 3만7천두에서 출발해 매년 사육두수가 증가돼 1995년에는 10만두를 넘었고, 2001년에는 15만6천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부진 등으로 감소돼 2004년 말 통계를 보면 13만8천 여두를 1만여 농가가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육두수가 감소된 것은 대체적으로 암사슴이 주로 감소됐고 품종별로는 꽃사슴이 많이 감소됐다. 이는 암사슴 사육에 소요되는 사료비 등의 생산비 대비 소득이 줄어들면서 암사슴사육 기피현상이 있고, 녹용생산량도 단

위 생산성이 높은 엘크사육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꽃사슴사육두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4년 말 통계에 의하면 총 13만8천두 중 꽃사슴이 58.8%인 8만1천여두, 엘크가 33.4%인 4만6천 여두, 레드디어가 5.5%인 7700여두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은 2004년에 70여 톤(건녹용 기준)수준이며, 수입녹용은 170여 톤(건 녹용 기준)이 수입돼 국내 녹용시장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용의 주요 수출국은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홍콩 등이며, 이중 뉴질랜드가 수입물량이 60%를 상회하는 최대 녹용수출국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은 대부분 축산물인 생 녹용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녹용은 건조처리 등 의약품 제조과정을 거쳐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녹용수입은 2001년부터 생 녹용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이 국내 산 생 녹용으로 원산지가 둔갑돼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양록업은 우리 농촌을 지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1992년 사슴수입 자유화 이후 사슴가격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내 양록업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었으나 사슴 값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고 사슴수입도 중단되면서 국내 양록인들의 시각도 사슴분양 위주의 수익성 추구에서 생산물판매 및 사슴생산비 절감으로 전환됐다. 또한 수익성 없는 저 능력 사슴은 도태해 결국 안정적인 양록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됐고, 국내 양록업이야 말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맞서갈 수 있으며 미래의 우리농촌을 지켜줄 축종일 수 있다는 기대로 바뀌게 됐다.

◆ 녹용 집재수요 개발

녹용은 이제까지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이용하는 한약재로 알려져 왔고, 비싼 처방비가 포함된 녹용을 이용하다보니 일반 서민들이 복용하기에

는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녹용을 직접 농가에서 구입해 손쉽게 달여 복용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어 향후 잠재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녹용의 신비스런 효능이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 의해 속속 입증되면서 녹용을 원료로 한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녹용성분을 농축산 캡슐제제를 비롯 화장품과 비누 등에 이르기까지 녹용의 수요가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환경친화적 축산

가축은 사람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오염원으로 인해 가축 사육이 점점 더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슴은 야생의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공배합사료를 먹이지 않고도 사육이 가능하며, 분뇨 배설량이 타 가축에 비해 현저히 적고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인해 분뇨가 자연스럽게 토양에 흡수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가장 환경친화적인 축종이다. 특히 전국토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잘 활용하면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고 고단백 육류와 녹용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축종이 될 수 있다.

◆ 녹용시장의 여건 변화

세계 녹용소비량의 80%를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최대 녹용수입국이므로 앞으로 잠재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이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인구 20억의 중국경제권이 앞으로 최대녹용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가 가장 용이한 수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사슴고기의 활용

우리는 사슴사육의 최대 목적의 녹용생산에 있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사슴고기 생산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슴고기는 고단백, 저콜레스테롤의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웰빙 식품인 사슴고기 섭취를 보편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사슴고기 전문식당이 생겨나고, 사슴고기를 이용한 중탕 가공제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어 사슴고기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양록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양록 산업은 어느 축종보다 발전가능성이 큰 미래의 주요 축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본다.

◆ 양록업의 전업화 · 구조화

양록업은 사육에서 수확,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장주가 직접 나서야 하는 특징이 있다. 양록을 주요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업으로 양록업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늘어나야 한다. 규모화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농가당 사슴사육두수는 평균 12두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이므로 합리적인 농장경영에 문제가 많다. 규모화의 기준은 꽃사슴 300두, 엘크 100두 이상을 하한선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 양록산물 가공 · 유통체계 개선

녹용은 앞으로 한약재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양분돼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외국에서는 녹용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도 녹용에 관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한 건강보조 식품 및 가공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하겠다.

◆ 양록 산업 발전을 위한 양록 자조금 사업

지나해 양록 업계 최초로 도입한 양록자조금 사업은 양록 농가의 참여가 부진해 정부지원금을 합해 모두 6848만원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했으나, 그



효과가 미흡했다. 지난해 2천만원 밖에 모금되지 않아 올해 3~4월에 TV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양록자조금을 계속 모금할 계획이다. 양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및 품질인증제가 시행돼야 하고, ▲양록 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보조 식품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겠으며, ▲축산물로서의 생 녹용 인정 및 유통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슴 자

양록 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작된다면 외국산 녹용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년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피해를 농촌·농업도 양록 산업을 선두로 해서 훨씬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주력 녹용은 일반적으로 한약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가축을 사육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축산업이며, 소, 돼지, 닭에 이어 제4의 가축임에도 이제까지 사슴사육은 기타가축으로 분류돼 축산 정책지원에서 외면돼 온 것이 사실이다.

양록 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작된다면 외국산 녹용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년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피해를 농촌·농업도 양록 산업을 선두로 해서 훨씬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녹용의 한약재 규제품 제조

가 도축 및 중탕제조에 관한 현실적인 법규를 보완하고, ▲수입녹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원산지 둔갑 판매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양록업도 이제는 사슴의 위생 및 방역관리를 위해서 2006년부터 본격추진 하는 사슴이표 장차 사업에 양록 농가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꼭 필요하다.

올해는 양록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양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